

하루를 시작하며



한 상 희
서귀포중학교 교장·교육학 박사

8남매가 부대끼는 집안의 등곳길은 늘 북새통이었다. 비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모아둔 양말을 나이 순서대로 챙겨 신다 보니, 막바지인 네 차례에 남은 건 색깔도 모양도 완전히 다른 짝짝이 양말 한 쌍뿐이었다.

「 짝짝이 양말 신어봤어? 」
빗길에 뚫고 짝짝이 양말을 신은 채 학교로 향했다. 어색함이 부끄러워 발끝을 살짝 웅크린 채 걸음을 옮겼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놀고 있을 때 눈썰미 좋은 친구 하나가 내 발끝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상희 너 양말 짝짝이 신었네!”

이거? 최신 유행이야 - 지나가는 것들과 남아 있는 마음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 “이거? 최신 유행이야.” 고개를 숙일 겨를도 없이 던져버린 한마디였다. 정적도 잠시, 아이들은 “진짜야?” 하며 킁킁거렸고, 해프닝은 그렇게 유쾌하게 흘러갔다.

일주일 뒤 제대로 짝을 맞춘 양말을 신고 등교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찾아온 친구들 발끝을 보는 순간 왈칵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정작 나는 제대로 짝 짝을 찾아 신었는데, 아이들만 짝짝이 양말을 신은 채 벌뚱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물었다. “상희야, 왜 오늘 유행처럼 안 신었어?” 이번에는 짐짓 농성을 떨며 답했다. “아, 이거? 제주도 유행 끝났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와르르 터져 나왔다.

「 다 왔는지 봐라 」
사실 우리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

었던 내력을 나는 잘 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제주 4·3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겪었다. 마을이 불타고 가족을 잃은 폐허 위에서 모진 세월을 견뎠다. 어머니는 그 깊은 아픔을 딛고 다시 삶을 일구며 우리 8남매를 낳아 키우셨다. 식구들을 거두느라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아이들 숫자를 일일이 세는 대신 그저 툭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다 왔는지 봐라.” 모든 것을 잃었던 세상에서 자식들이 무사히 한자리에 둘러앉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그 거친 세월을 버티게 해 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식들을 지켜내는 것이 어머니가 세상을 이겨내는 방식이었다.

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단단함 때문이었을까. 내게 짝짝이 양말 한 짝 좁은 대수롭지 않았다. ‘오늘 비가

오면 내일은 맑겠지, 날이 밝으면 내일은 제 짝 양말을 신으면 되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자연스레 몸에 익었다. 돌아보면 그 시절의 가난이 아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의 온기로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잠시 머무는 유행처럼 」
생각해 보면 유행(流行)이란 한자 그대로 ‘흘러서(流) 지나가는(行) 것’이다. 옷차림이나 눈에 보이는 물건들만 유행이 되는 게 아니다. 살다 보면 불쑥 찾아오는 짝짝이 양말 같은 난감함이나 뜻밖의 결핍, 서러운 슬픔과 상처마저도 결국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유행일 뿐이다. 훗날 삶의 여정에서 또다시 까다롭고 휘청이는 순간이 찾아오면, 나는 그 시절 복도에서 그랬듯 마음속으로 툭 던지며 조용히 웃어 보려 한다. ‘뭘 어쩌, 이것도 그저 흘러가는 유행인걸.’

사설

지역여건 외면한 제주 초등학교사 선발 인원

정부가 2027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학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2년 전보다 70% 넘게 줄여 교원 수급과 교육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제주지역 초등학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6명으로 사전 예고됐다. 이는 2025년 94명, 2026년 6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2년 사이 72% 줄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선발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오는 9월 9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원을 줄이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겸임과 순회 수업이 늘고 도심 학교 역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도심 과밀학교와 읍면 소규모

학교가 공존하는 제주 특성을 고려해 학생 수만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교조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원 수급 안정과 정원 확보’가 주요 교육의제로 꼽혔다. 특히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최종 선발 인원 확정에 앞서 각 시도 교육청별 임용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한 것이다. 최종 선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절충을 벌여 교원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제주 교육의 여건과 제주 교사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파해야 한다.

말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몇 년 전 한 다큐물이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퇴역 경주마들을 돌보는 전직 프로골프 선수의 이야기다. 그는 도내 중산간에서 퇴역 경주마 30마리를 돌보며 살아간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버림받은 말들이다. 퇴역 후 도축장에서 구출된 말, 승마 대회에서 방출된 말들이다. 사료·건조 골프 레슨 등으로 마련한 시간이 날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 준다. 퇴역 경주마·유기마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얼마 전 말을 불법도축한 50대가 적발됐다. 현장에는 말의 사체와 함께 말 4마리와 흑염소가 방치돼 있었다. 구조된 말 1마리는 갓 퇴역한 경주마로 확인됐다. 퇴역 후 ‘승용마’로 변경·등록됐으나, 불법 도축 현장에서 발견됐다. 몇 년 전에

도 서귀포시의 한 초지에서 말을 불법도축한 70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혹서기 기수·경주마 보호를 위해 ‘야간 경마’를 한다면서 첫 경주를 한낮에 시작하는 등 학대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마사회가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말 등록의 법적 기반 강화·이력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진일보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나아가 여타 선진국들처럼 법제화를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퇴역 이후 새로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제도적 정비와 함께 말들이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4·5살에 퇴역해 살처분되는 잔혹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제주가 지향하는 말산업특구의 기본 이념이 기도 하다.

열린마당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데이터 기반 행정’

강 성 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러한 변화는 지하수 관리에서 뚜렷하다. 공사는 지하수 관측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기반 예측 기술을 활용해 취수원 주변 변화를 분석하며 삼다수 취수가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도 AI 기반 감측 자동 선별기와 지능형 지계자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은 기술이 맡고 사람은 전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공사는 문서와 경험 중심 업무를 데이터와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AX도 추진하고 있다. 직원이 직접 기술을 활용하는 ‘SAMDA 크루’를 출범하고 관련 교육도 운영 중이다.

제주의 과제는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AI로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것이 공공의 새로운 역할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도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한다.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원칙이다. 과거에는 경험이 의사결정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기준이 돼야 한다. 데이터는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 자산이다.

제주개발공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경영의 한 축으로 삼아 왔으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공유해 실제 의사결정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위 지사, 소상공인 현장 건의·애로사항 청취

10일 상인연합회 간담회

15일 ‘우도 서머 페스티벌’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제주시 동문시장고객지원센터에서 제주도상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이날 간담회에는 고정호 제주도 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창영 수석부회장, 강희경·임병완 부회장 등 임원진과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상권별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

연합회 임원진은 운영비 지원과 보조사업 자부담 완화,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중심으로 건의했으며 위 지사는 “건의사항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실무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고 화답.

오소범기자

○…제주시 우도면이 오는 15일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제4회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연휴 첫날을 장식.

11일 우도면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향토음식점 운영과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후 7시 개막행사에서는 가수 설하윤·김수찬·장하은의 축하무대와 함께 디제잉 워터쇼가 진행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을 예정.

김광수 우도면장은 “이번 축제는 ‘2040 플러스틱 제로 제주’ 실현에 동참하는 친환경 행사로 추진된다”며 “야간 불거리가 부족했던 우도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우도, 머물고 싶은 우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혈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